

광산구 올 최고 혁신정책 ‘위원회 회의 실시간 공개’

전국 최초 118개위 공개 전환
평가단 뽑은 20진 온라인투표

광주 광산구는 ‘위원회 회의 모습 실시간 공개’를 시민의 삶을 이롭게 한 올해 최고의 혁신정책으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광산구는 전문가와 내부 직원으로 구성된 평가단 심사를 거쳐 뽑은 20건의 우수 정책을 바탕으로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전문가·내부직원 심사(50%), 시민 온라인 투표(50%)를 합산한 결과 전국 최초 위원회 회의 모습 실시간 공개가 가장 높은 득점으로 올해의 혁신정책 1위에 올랐다.

광산구는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9월 전국 최초로 구에

서 운영하는 118개 위원회를 ‘공개 원칙’으로 전환했다.

시민이 휴대폰이나 PC를 통해 광산구에서 열리는 위원회 회의 장면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됐다. 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등도 전면 공개하고 있다. 이외 △이동노동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휴게쉼터 ‘달고나(달리다 고단하면 나에게로 와)’ 운영 △당근광산(당신 근처의, 광산) 프로젝트도 올해를 빛낸 혁신정책에 꼽혔다.

‘달고나’ 쉼터는 지역 커피숍과 함께 이동노동자가 언제나 편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안전교육을 연계해 휴식과 안전할 권리를 보장한 정책 사례로 주목받았다.

‘당근광산 프로젝트’는 국내 대표 지역 기반 민간 플랫폼인 ㈜당근과 협업해 일자리, 공간 등의 정보를 필요한 시민에게 제공하는 ‘연결 혁신’ 정책으로, 중앙정



광주 광산구는 ‘위원회 회의 모습 실시간 공개’를 시민의 삶을 이롭게 한 올해 최고의 혁신정책으로 선정했다. **광산구 제공**

부, 광주시 등에서도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광산구는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29일 열리는 종무식에서 혁신대상을 시상하고, 혁신정책 사례집을 제작해 시민, 공

직자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시민을 이롭게 하는 정책을 지속 발굴·확산시켜 광산이 대한민국 혁신 1번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철 기자**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북구 ‘복지정책연구회’

광주 북구의회 의원연구회인 ‘복지정책연구회’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보고회에는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북구청 복지정책과 관계자, 연구용역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연구용역 결과 보고, 연구 결과에 대한 토론, 질의 순으로 진행됐다.

연구용역기관은 △현상 유지 △북구형 공급체계 개선 △북구형 사업 개선 △북구형 정책 개발 등 4가지 유형의 복지모델을 도출했다.

복지모델 설계 시 단기·장기의 자치법규 정비가 병행돼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난 7월 고영임 대표 의원을 비롯해 김영순·한양임·기대서·임종국 의원으로 구성된 연구회는 북구 복지정책을 점검, 지역 복지환경에 특화된 복지정책 모델 개발을 목표로 발족했다. 연구회는 간담회, 전문가 초청 세미나, 독서토론회 등 다양한 연구 활동을 펼쳐 왔다. **정성현 기자**

생활 속 복합 커뮤니티 개관 서구 유덕동 새물마루센터

광주 서구(청장 김이강)가 27일 유덕동에 문화·복지 복합 공간인 ‘새물마루센터’의 문을 열었다.

새물마루센터는 지상 3층 643㎡규모의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로 △1층 경로당 △2,3층 생활문화센터 △3층 작은도서관을 갖추고 있다.

1층 새물경로당은 기존 송당경로당 건물 노후화로 불편함을 겪었던 이용자들을 위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으로 재탄생했으며,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2·3층 생활문화센터는 지역주민의 공동체 활동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인 ‘마주침 공간’과 음악, 악기 등을 연습할 수 있는 ‘방음공간’, 요가·체조 등이 가능한 ‘마루공간’, 생활문화 프로그램 공간인 ‘학습공간’ 등으로 조성됐다. 생활문화센터는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운영되고 공간대관, 동호회 양성과 같이 지역민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될 계획이다.

3층 작은 도서관은 화~토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일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운영되며 주민을 위한 열람공간과 서가로 조성됐다. 3250여 권의 장서가 비치됐으며 유덕동 마을 BI인 ‘아이가 미소 짓는 마을’과 연계한 활동이 진행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주민 체감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문화생활 및 예술 활동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주비 기자**

자활 분야 대통령상 수상 광산구, 우수지자체 평가

광주 광산구는 보건복지부 주관한 ‘2023년 자활 분야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16개 광역시·도 및 22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활근로, 자산형성 지원사업, 자활기금 활성화, 자활사업운영 등 자활 전반 4개 분야를 평가했다. 광산구는 모든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대통령상을 받았다.

광산구는 지역자활센터 2개소(여등지역자활센터·광산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저소득층 600명(월평균)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맞춰 저소득층 사회참여 확대와 상생을 위한 일자리를 발굴한 노력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상철 기자**

“전라도 천년사 폐기해야” 북구의회 의원들 촉구

광주 북구의회(의장 김형수)는 27일 본회의장에서 식민사관 서술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전라도 천년사’ 폐기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북구의회 의원들은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역사단체, 정치권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전남·전북 3개 시도와 편찬위원회 측은 여전히 책자 발간을 주장하고 있다”며 ““전라도 천년사”의 폐기와 사업 시행주체인 지자체는 공식 입장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한 편찬위원회 또한 갈등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역사 주체인 시·도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한다”며 “전라의 역사적 동질성을 확립하고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하려 했던 당초 취지와 달리 갈등과 분열의 중심이 된 지금 올바른 역사적 결단력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정달성 북구의원은 “역사는 한 번 잘못 기록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지난 5년간 2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이지만 식민사관 서술 의혹 및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만큼 올바른 역사 정립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광주 북구청 일대에서 펼쳐진 2023 을지연습 테러 대응 훈련 도중 31사단 군사경찰대원들이 청사 내 침입 적 병사를 제압하기 위해 레펠링 하강을 하고 있다. **북구 제공**

북구, 비상대비훈련 유공평가 ‘국무총리상’ 수상

광주 북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비상대비훈련 유공 평가’에서 전국 특·광역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비상대비훈련 유공 평가는 무인비행체(드론) 테러, 사이버 공격 등 고도화되고 급변하고 있는 안보 현실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을지 연습을 수행하고 국

가 비상대비 역량 강화에 기여한 기관의 공적을 기리고 있다.

올해 유공기관 선정은 행정안전부 예비심사, 대국민 공개검증,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공적 심의·의결 절차를 거쳤다.

북구는 이번 평가에서 △내실 있는 을지연습 사전 직원교육 △전시 통합상황조치모델 전면 개편 △주민 대상 적극적

인 안보 홍보 △민·관·군·경의 체계적인 협업 실전 연습 등을 추진해 좋은 평가를 얻었다. 전시 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확고히 하고 호국안보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유도했다는 평이다.

지난 8월 ‘북구청사 드론 테러 대응·소방훈련’을 6개 유관기관과 함께 실제상황과 같이 수행한 점이 높게 평가 받았다. **정성현 기자**

서구,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최우수 지자체

7000만원 특교세 확보

광주 서구(청장 김이강)가 최근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3년도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지자체 실적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7000만원을 확보했다.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실적 평가는 1년 동안 전국 지자체의 공유서비스 활성화 노력과 성과 전반을 기준으로 한다.

서구는 평가가 도입된 지난 2020년부터 공유 평가 우수등급 이상을 지속 획득했으며 이번 최우수 등급으로 재정 인센티브 및 표창을 받게 됐다.

서구는 올 한 해 동안 다양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유사업 확장에 최선을 다해왔으며 지난 6월 시행한 ‘센터별 물품공유센터 특화 운영’ 및 지난 7월 코로나 이후 광주시 최초로 학교 공유 주차장 개방 협약을 맺는 등 업무를 추진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지역사회 현안 해결의 키는 공유에 있으며 공유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다각화된 공유 정책 추진을 통해 선도적인 공유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관내 물품공유센터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공유 축진 공모사업을 실시하는 등 공유하고 나누며 상생하는 서구형 공유 모델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강주비 기자